

남아도는 전기... 옛일 된 절전운동

경기침체에 산업용 소비 줄고 민간발전소 늘어 공급과잉 한시적 요금 감면...LNG 발전소 10곳중 6곳 가동 중단

매년 여름이면 전력 수급 불안 탓에 정부가 앞서서 절전 운동을 벌였지만 올해는 잡잡하다. 한여름에도 전기가 남아돌기 때문이다. 2년 전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사태를 우려했던 것과 정반대 상황이다. 경기 하락으로 산업용 전력 소비가 크게 줄어든 데다, 수년 새 민간발전소가 늘어나 공급 능력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지난 6월 정부가 여름철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내놓던 당시 전기 과소비 유도를 우려하는 주장도 나왔으나 여유있는 수급 덕분에 다행히(?) 비판도 빚겨갈 수 있게 됐다.

6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 전력공급 예비율은 29.6%에 이르렀다. 전

국 발전소에서 생산 가능한 전력이 100이라면 30가량은 쓰지 않고 그냥 돌려두고 있다는 뜻이다. 앞서 2일엔 39.8%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지난달 전력 수요가 가장 많았던 30일에도 예비율이 17%를 기록했다. 지난 2012년 7월 전력 수요가 최대였던 날 예비율이 6%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높다.

전력 수요는 줄고 있지만 전력 공급 능력이 증가한 것도 예비율 상승에 기여했다. 일일 최대치를 기준으로 지난달 1~19일 평균 전력 사용량은 6583만kWh로 지난해 같은 기간 6782만kWh와 비교해 2.9% 감소했다. 하지만 전력 공급 능력은 같은 기간 5.0% 증가한 8830만kWh에 달했다. 올 여름 전기 수요가 줄어든 가장 큰 이

유는 국내 전체 전력의 51%를 사용하는 산업용 전력의 소비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한국전력의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684억4000여만kWh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산업용 전력 소비 증가율은 2013년 4분기부터 6분기 연속 감소 추세다. 2013년 4분기 산업용 전력 수요는 전년 동기보다 5.5% 늘어났지만 이후 둔화 추세를 기록, 지난해 4분기에는 1.4% 증가에 그쳤다. 이는 경기 하락으로 공장 가동률이 그만큼 낮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전국적으로 수억년에 빠진 제철소가 연이어 철강생산 공장을 폐쇄한 영향도 컸다.

반면 공급 능력 증가는 정부의 무분별한 발전소 건립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블랙아웃 위기를 겪었던 정부는 화력발전소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를 단기간에 추가 설립하기로 결정했고, 결

국 전력 과잉의 원인을 제공했다. 전기가 남아돌면서 상업생산에 들어간 LNG 발전소의 가동률은 지난 5월 기준 40%에 그치고 있다. 2013년 6월 64.6%와 비교하면 25%포인트나 하락한 수치다.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상업생산에 들어간 지 불과 2개월 만에 발전소가 매물로 나올 정도다. LNG 발전소 10곳 가운데 6곳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셈이다.

전력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력 사용량이 최대치에 이르렀을 때 예비율을 5~10%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가장 경제적이다"라며 "정부가 장기적인 시각에서 전력 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 여름 전기요금 인하 대상은 월 전력소비량이 301~600kWh(전기요금 4만 7260~21만7350원)인 소비자들이다. 주택용의 경우 9월까지 누진제 4구간(월 301~400kWh)에 3구간(월 201~300kWh) 요금을 적용한다. /임동룡기자xian@



가로수 열사병 예방을 위해 광주지역 가장 높은 기온(34.9도)을 기록한 6일 오후 광주시 북구청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가로수에 물 주머니(30ℓ)를 설치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2018년부터 고교 공통과목 수업

문·이과 통합 7개 신설... 교육부, 교육개정 공청회 개최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8학년도부터 고교에서 문·이과 구분없이 배우는 '공통과목'이 도입되고 진로교육이 확대된다.

초등학교 1~2학년은 '안전생활' 과목이 신설되고 한글교육이 강화된다.

또 중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정보' 교과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 '국가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위원장 김경자)는 6일 오후 2시 한국교육단체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5 개정 교육과정(문·이과통합형) 제1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이날 발표된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은 고등학생이 필수로 듣는 공통과목을 7개 제시했다.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8단위로, 한국사는 6단위로 신설되고 실험중심의 과학탐구실험은 2단위다.

1단위는 50분 기준의 수업을 17차례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공통과목 신설은 현재 고교 교육과정의 모든 선택과목으로 돼 있어서 일부 학생들의 '지식편중' 현상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모든 학생이 인문, 사회, 과학기술에 관한 기초소양을 기르게 하자는 것이다.

고등학생이 주로 2학년 때부터 배우는 선택과목은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으로 나뉜다.

예컨대 인문계열 학생은 공통과목을 이수하고 국어, 영어의 일반선택 과목 진

부, 진로선택 중 '심화국어', '실용영어', '진로영어' 등을 배울 수 있다.

총론 시안은 일반고(자율고 포함)의 모든 학생이 진로선택 과목을 3개 과목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특성화고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해 진로 및 직업교육에 집중하도록 했다.

중학교는 내년에 전면시행할 자유학기제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지필고사에 대한 부담없이 진로탐색, 동아리 활동 등에 집중하는 것이다.

정보화 사회의 기초 소양을 위한 '정보' 과목은 선택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바뀐다. 수업은 1년간 매주 1시간씩 이뤄진다.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수업시수를 주당 1시간 늘리고 확보된 시수를 체험 위주의 안전생활 교과에 배정하도록 했다. 안전생활 교과의 신설은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초등학생 한글교육도 강화된다. 늘어선 심의 유아교육으로 한글 공부에 부족한 학생을 위한 것으로 1~2학년이 받는 한글교육이 현행 27시간에서 45시간 정도로 늘어난다.

시안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전반에서 다루도록 하는 '법교과 학습 주제'를 현재 39개에서 10개로 대폭 줄였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상 05:45 해질 19:31 해질 23:27 해질 13:04

비강스 대첩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25/34	보성	22/33
목포	24/33	순천	24/34
여수	25/30	영광	24/34
나주	23/35	진도	23/32
완도	23/32	진주	25/35
구례	22/35	군산	24/34
강진	22/32	남원	23/35
해남	22/32	홍산도	22/29
장성	23/33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파고(m)	풍향	파고(m)	오후
서해	앞바다	동~남동	0.5~1.0	동~남동	0.5~1.5	3.0~3.5
	면바다	동~남동	0.5~2.0	동~남동	1.5~3.0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1.0~2.0	3.0~3.0
	면바다(동)	북동~동	1.5~2.5	북동~동	2.0~3.0	
서부	면바다(서)	북동~동	1.5~2.5	북동~동	1.5~2.5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7:13	12:21
	19:57	23:52
여수	밀물	썰물
	01:42	08:01
	14:34	20:27

◇주간 날씨

8(토)	9(일)	10(월)	11(화)	12(수)	13(목)	14(금)
☀	☀	☀	☀	☁	☁	☀
25/33	25/33	24/32	24/30	24/28	24/28	24/30

◇생활지수

- 식중독: 경고
- 운동: 40
- 빨래: 90

주말까지 폭염... 다음주 비 한풀 꺾여

폭염이 지속한 6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의 최고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게 치솟았다. 불볕 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다가 다음주 중반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전남 주요 지역 최고 기온은 화순 36.9도를 비롯한 곡성·구례·나주 36.2도, 함평 35.9도, 광주 34.9도 등이었다.

광양·나주·화순·함평·구례·곡성 등 전남 6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광주와 목포 등 전남 8개 시·군에는 폭염 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광주는 물론 영광·해남·고

흥·담양 등 전남 대부분 시·군이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광주의 경우 이날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3.1도, 지난해보다 3.0도 높았다. 지난 1~6일 광주의 평균 최고기온은 33.8도로 2012년에 이어 최근 5년 새 두 번째로 높았다. 같은 기간 평균 최고기온은 2011년 33.2도, 2012년 36.2도, 2013년 32.6도, 지난해 29.2도였다. 기상청은 이 같은 불볕 더위가 주말까지 지속하다가 다음주 중반(12~13일)에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중학교 자유학기제 내년 전면 시행

한학기 시험 없이 체험활동

지필고사에 대한 부담없이 동아리, 진로탐색 등의 체험활동에 집중하는 자유학기제가 내년에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된다.

교육부는 6일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위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자유학기제 운영 학기를 1학년 1 학기와 2학기, 2학년 1학기 중에서 학교장이 교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정하도

록 했다.

또 자유학기제 운영모형으로 오전에 교실에서 수업하고 오후에 학생이 진로탐색,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등 '자유학기 활동'을 하는 방안을 내놨다.

'자유학기 활동'은 170시간(주당 10시간) 이상 편성된다.

교육부는 이날 중으로 자유학기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유학기제 편성·운영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10여년을 고객과 함께한 전국1위 골프멤버십

전국 명문 300여개 골프장 무기명4인 주중, 주말

정회원 선불 특별회원 모집

호남, 제주 그린피 전액지원

상품안내 (단위: 만원(VAT별도))

구분	다이렉트1	다이렉트2	퍼펙트(법인)	프라임
총액	3600	1050	1600	950
통장보증	3000			
입회금	600	1050	1600	950
이용기간	5년 180회	5년 180회	5년 280회	5년 140회
이용횟수	월4회 년36회	월4회 년36회	월6회 년56회	월3회 년28회
회원등재	본인+무기명	본인+무기명	본인+무기명3	본인+무기명

* 주중/주말 사용 가능(자세한 내용은 상담바랍니다)

선불 특별회원 가입안내

- 전국 골프장 주중, 주말 정회원 대우 그린피 혜택
- 호남, 제주 그린피 전액 지원
- 법인 무기명 4인 사용 가능
- 동남아, 중국 무료라운딩(동절기)
- 년2회 국내 및 해외 회원 초청행사

(주)리즈골프 상담문의 (062)371-1800

리즈골프는 2002년도에 설립되어 업계 최다수의 회원님들을 서비스 관리해 드리고 있는 고객만족도 최고의 회사입니다.